

광주·무안공항 모두 살리자

국제선 오픈면 공멸

전남 동북부·전북 이용 급감...우수고객 내쫓는 꼴

1 '광주 희생' 꼭 필요한가

건교부가 광주공항 국제선을 오는 11월 9일부터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기로 함에 따라 지척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건교부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다음달 8일 무안공항 개항 바로 다음날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국내선 기능도 향후 수요를 뺏기며 이전을 검토한다는 기본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몇 안되는 흑자공항인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 이전만으로 무안공항이 활성화될 지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광주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광주공항은 지난 2003년 후반부터 국제선 운항을 본격화한 이후, 국제공항을 제외한 우리나라 8개 국내공항 중에서는 유일한 흑자공항이다.

특히 주당 11회 운항(연간 이용객 12만4천명)하고 있는 광주공항 국제선은 정부가 개설한 노선이 아니라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 여행업계의 노력으로 성사된 노선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책 논리를 앞세워 이전을 강

행할 경우 광주공항은 물론 무안공항까지도 항공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편도 기준 1시간 이상의 시간 및 비용의 추가로 인해 광주는 물론 전남 동북부, 전북지역 이용자들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인천공항·김포공항이 있고, 영남권에 김해공항·대구공항이 있듯이 무안공

항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에 대한 정부의 과격적인 지원과 광주공항의 국제선 유지를 통해 양 공항의 동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는 최근 몇 년간 자동차·디지털가전·관광업 등 주력산업의 수출·산업생산이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지난 9월 초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됐으며, 광주비엔날레(2008년)와 광엑스포(2009년),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계획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가 진행중이어서 국제선을 갖춘 공항은 필수적인 인프라로 꼽히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8일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반대 결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지역 경제인 2천여명이 22일 오후 2시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광주공항 무안이전 반대 광주지역 경제인 결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디자인 비엔날레 인파

휴일인 21일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관람객들의 발길로 하루 종일 붐볐다. 개막 17일째를 맞은 이날까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객은 모두 12만4천여명을 기록했다. /위직기자 jrwi@

신정아 비엔날레 감독 선임 변씨 '韓이사장에 압력' 확인

혐의 추가...이달말 기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의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본보 9월 12일자 1면)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변 전 실장은 지난 7월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으로 선임되도록 하기 위해 감독 선임권자였던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이같은 사실을 한갑수 전 이사장과 변 전 실장간 통신기록 분석과 변 전 실장의 진술을 통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비엔날레 감독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으로 선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에 구속 수감중인 변 전 실장에 대해 비엔날레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추가,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알고도 외압을 행사했다면 신씨와 함께 비엔날레 재단의 공정한 감독선임 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변 전 실장의 학력위조 인지 시점을 파악해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묶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지난 12일 구속수감돼 1차 구속 기간이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의 구속기간을 지난 19일 연장했고 2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에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社告

제21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6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이여일 교수 '아름다운 폐경...갱년기 건강'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6일(금) '제21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아름다운 폐경'을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산부인과 이여일 교수로, 여성의 폐경 전후의 내분비학적 변화·갱년기의 주요 증상·호르몬 대체요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강좌내용은 오는 30일(화)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아름다운 폐경
- 강 사 : 이여일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남대 대학원 석사·박사
-전남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과장
-호남 최초 시험관 아기 임신·출산
-대한보조생식학회 회장
-대한불임학회 수석부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상임이사

- 일 시 : 10월26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이명박 '호남 구애' 강도 높인다

오늘 광주 방문...정동영, LH후보에 '정책토론' 제안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선출이 모두 끝나면서 호남권을 향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첫 필승결의대회와 중앙선대위 회의를 갖고 호남 표심 공략을 본격화 한다. '국민성공 대장정 광주·전남대회'

로 명명된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광주·전남 맞춤형' 정책공약을 선보여 다른 후보와 정책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지역상공인 간담회,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5·18 기념재단 방문, 5·18단체 대표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갖고 지역 민심을 수렴하는 한편 여수 엑스포 홍보관을 방문,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이번 대선에서 가치로 승부하자"며 정책전문가 대토론회를 제안한 뒤 ▲행복한 가족 ▲넓고 많은 기회 ▲차별없는 성장 ▲약자·소수자의 통합 ▲한반도 평화 등 5대 미래가치를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말미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으로 봤을 때 다 소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 거 저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신약,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할 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928-0200]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